

영화음악과 오케스트라

(편성편-미디어일본)

박운영 저

Chpt1. 오케스트라 개론



[오케스트라 악단]

1. 오케스트라란 무엇인가

관현악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극장의 관객과 무대 사이에 위치한 무희들의 춤추는 장소를 오케스트라(Orchestra)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되는 대형의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크게 4개의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현악기(Strings), 목관악기(Woodwinds), 금관악기(Brass), 타악기(Percussions) 계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협주할 수 있는 건반악기(Keyboard Instruments)가 있습니다.

현악기

바이올린(Violin), 비올라(Viola), 첼로(Violoncello), 더블 베이스(Double Bass 또는 Contra Bass), 하프(Harp).

목관악기

피콜로(Piccolo), 플루트(Flute), 알토/베이스 플룻, 오보에(Oboe), 잉글리쉬 호른(English Horn), 클라리넷(Clarinet), 베이스 클라리넷(Bass Clarinet), 바순(Bassoon), 더블 바순(Double Bassoon), 알토 색소폰(Alto Saxophone), 테너 색소폰(Tenor Saxophone).

금관악기

호른(French Horn), 트럼펫(Trumpet), 테너 트롬본(Tenor Trombone), 베이스 트롬본(Bass Trumbone), 튜바(Tuba), 콘트라 튜바(Contra Tuba).

타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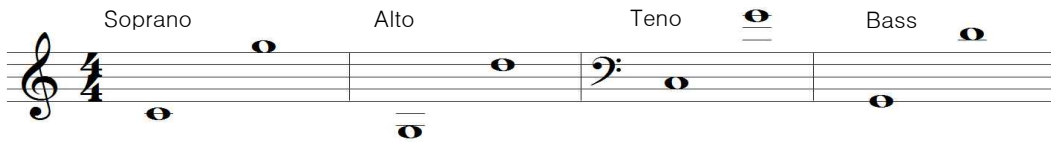
심벌(Cymbals), 사이드 드럼(Side Drum 또는 Snare Drum), 팀파니(Timpani 또는 Kettle Drum), 베이스 드럼(Bass Drum), 트라이앵글(Triangle), 탬버린(Tambourine), 캐스터네츠(Castanets), 공(Tam-Tam), 벨(Chime Bell), 실로폰(Xylophone), 비브라폰(Vibraphone).

건반악기

피아노(Piano), 첼레스타(Celesta), 쳄발로(Cembalo 또는 Harpsichord), 오르간(Organ).

2. 음역별 편성

음역을 구분할 때 흔히 소프라노(Soprano), 알토(Alto), 테너(Tenor), 베이스(Bass)의 4성부 구분법을 흔히 사용합니다.



[성부별 음역]

오케스트라의 악기 편성도 위의 음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성부로 나뉘어 이루어지는데 각 성부별로 약간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악의 베이스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블 베이스가 첨가되거나 목관의 소프라노를 피콜로가 보강하고, 베이스를 더블 바순이 보강하며, 금관의 베이스를 콘트라 튜바가 보강할 수 있습니다.

성 부 \ 악 기	현 악 기	목 관 악 기	금 관 악 기
소프라노	바이올린 I	플루트, 피콜로, 오보에	트럼펫 I
알토	바이올린 II	클라리넷 I, 잉글리쉬 호른	트럼펫 II, 호른 I, 트롬본 I
테너	비올라	클라리넷 II	호른 II, 트롬본 II
베이스	첼로, 더블 베이스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더블 바순	베이스 트롬본, 튜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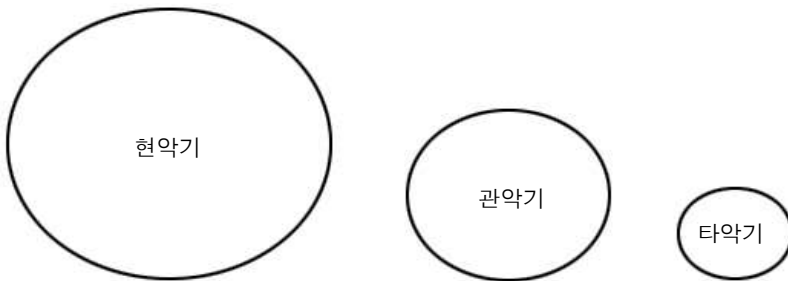
[4개 성부와 음역의 배치]

3. 오케스트라의 규모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목관악기를 기준으로하여 2관 편성, 3관 편성 4관 편성으로 구분합니다. 즉, 각각의 목관악기가 2개씩이면 2관, 3개씩이면 3관, 4개씩이면 4관 편성이라 합니다. 각 편성에는 한 개씩의 보조악기가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각 편성에 따른 목관악기의 구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2관 편성 (약60명)	3관 편성 (약80명)	4관 편성 (약100명)
플루트 I,II(또는 피콜로)	플루트 I,II,III(또는 피콜로)	플루트 I,II,III, 피콜로
오보에 I,II(또는 잉글리쉬 호른)	오보에 I,II, 잉글리쉬 호른	오보에 I,II,III, 잉글리쉬 호른
클라리넷 I,II (또는 베이스 클라리넷)	클라리넷 I,II,III(또는 베이스 클라리넷)	클라리넷 I,II,III,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I,II	바순 I,II,III(또는 더블 바순)	바순 I,II,III, 더블 바순

위의 목관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전체 인원수는 2관에서 60명, 3관에서는 80, 4관에서는 100명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구성인원의 2/3정도가 현악기 주자이고, 1/4정도가 관악기 주자이며, 약 3~5명 가량이 타악기 주자입니다.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 비율]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것은 아니고 곡과 작곡자, 지휘자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관현악이 발생된 초기에는 사실 그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았는데 한 예로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에서는 바이올린 2개, 비올라 10개, 피콜로 1개, 트럼펫 4개 등의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후 관현악의 전성기인 19세기 중반에 와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여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에서는 바이올린 120개, 비올라 40개, 플루트 14개, 클라리넷 15개, 하프 30개, 피아노 30개 등과 같이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후 20세기 초 말러와 바그너를 정점으로 극대화되었다가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 드뷔시는 각 악기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서는 바이올린 2개, 플루트 3개, 오보에 3개, 호른 4개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천을 볼 때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디 음악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악기의 수와 음량의 밸런스도 역시 곡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오케스트라 악기의 주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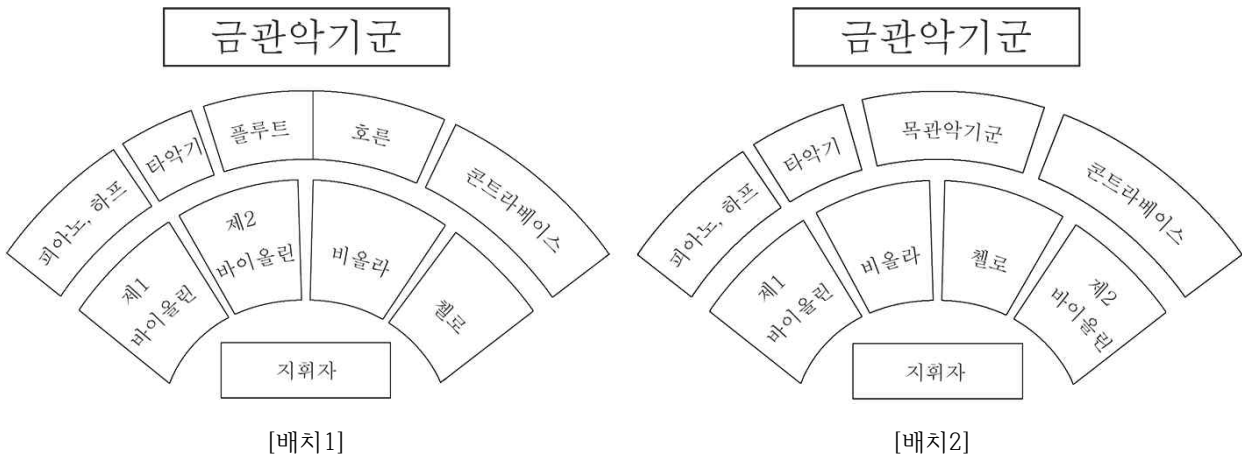
주 법	악 기	설 명
스타카토	현,관악	음길이를 1/2이나 1/3, 1/4 등으로 짧게 줄인다.
스피카토	현,관악	어택이 강한 스타카토
트릴	현,관악	두 음을 32분음표 정도로 빠르게 번갈아 연주한다(혹은 한음을 길게 연장한 후 피치휠로 표현하거나 가상악기의 자동 트릴 샘플을 사용).
트레몰로	현,관악	한 음을 32분음표 정도로 빠르게 끊어 연주한다.
피치카토(Pizzicato)	현	손가락으로 줄을 뜯어 소리낸다.
마르카토(Marcato)	현	보잉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세게 보잉하는 주법으로서 강렬하고 거친 느낌을 준다.
술타스토(Sul Tasto)	현	지판(Fret) 근처의 현에 활을 켜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 MP3 Fm-001
술포티첼로(Sul Ponticello)	현	브릿지 근처의 현에 활을 켜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MP3 Fm-002
콜레뇨 트라토(Col Legno Tratto)	현	활을 뒤집어 현을 켜다. MP3 Fm-003
콜레뇨 바투도(Col Legno Battuto)	현	현을 활로 때려서 연주하여 타악기와 같은 소리를 만든다. MP3 Fm-004
하모닉스(Harmonics)	현 Flute	현의 특정 지점에 가볍게 손가락을 댄으로써 날카로운 고음역대의 소리가 난다. 플루트의 경우엔 바람을 세차게 불어 발생시킨다. MP3 Fm-005
위스틀톤(Whistle Tone)	Flute	마우스피스에 바람을 세차게 불어넣어 고음역대의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MP3 Fm-006
플러터팅잉(Flutter Tonguing)	Flute 금관	혀를 굴리면서 바람을 불어넣어 '도로로~'하는 트레몰로같은 소리를 낸다. MP3 Fm-007
키클릭(Key Click)	목관	바람을 불어넣지 않은 채 키(Key)를 다소 세게 눌러 '톡톡'거리는 소리를 낸다. MP3 Fm-008
뮤트(Con Sordino) ↔ Senza Sordino	현,관악	현악기, 관악기 등에서 뮤트 장치(약음기)를 부착하여 소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주법이다. 특히 금관악기에서는 약음기의 종류가 여러가지로서 다양한 음색이 발생된다. MP3 Fm-009

이와 관련해 최근의 가상악기(VSTi)들은 키 스위치(Key Switch, 건반에서 쓰지 않는 최저음이나 최고음)를 누르면 자동으로 특정 주법의 샘플로 전환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5. 악기의 배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 같은 계열끼리 뭉쳐서 배치합니다. 전체적인 음향과 음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배치하는데 대체로 부드럽거나 중추가 되는 악기군은 앞에 위치시키며, 음색이나 음량이 강한 것은 뒤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배치 방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곡자나 지휘자 또는 연주장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들을 봅시다.



[참고: 클래식에서의 파트 기보법]

전통 클래식에서는 오른쪽의 악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관→금관→건반/타악기→현악'의 순서로 악보상에 배치된다. 그러나 현대 영화음악에서는 연주되는 타악기나 특수한 신디사이저 음색의 수가 많기 때문에 '건반/타악기'를 금관과 현악 사이에 끼워넣기 보다는 '목관→금관→현악→건반/타악기' 순서대로 배치함으로써 타악기 트랙의 확장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편리하다.

피콜로(Piccolo)는 기보된 것보다 한 옥타브 위의 소리를 낸다.

플룻(Flute)은 기보된 것과 동일한 소리를 낸다.

오보에(Oboe)는 기보된 것과 동일한 소리를 낸다.

클라리넷(Clarinet)은 이조악기로서 Bb과 A조가 많이 사용되는데 Bb 클라리넷은 기보된 것보다 2반음 낮은 소리를 낸다.

바순(Bassoon)은 파곳(Fagott)이라고도 한다.

더블 바순(Double Basson)은 콘트라 바순(Contra Fagott)이라고도 하는데 기보된 것보다 1옥타브 낮은 소리를 낸다.

프렌치 호른(French Horn)은 이태리어로 코르니(Corni)라고도 부르는데 이조악기로서 F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것은 기보된 것보다 7반음 낮은 소리를 낸다.

트럼펫(Trumpet)은 이조악기로서 보통 Bb조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기보된 것보다 2반음 낮은 소리를 낸다.

트롬본(Trombone)은 기보된 것과 동일한 소리를 낸다.

튜바(Tuba)는 기보된 것과 동일한 소리를 낸다.

팀파니(Timpani)는 케틀 드럼(Kettle Drum)이라고도 부르며 악보 서두에 음정을 표시하기도 한다.

타악기의 보표에는 첫머리에 두 줄의 막대가 그어지며 보통 음정이 없는 타악기를 위해서 사용된다.

바이올린(Violin)의 보표는 제 1바이올린과 제 2바이올린을 위해서 보통 두 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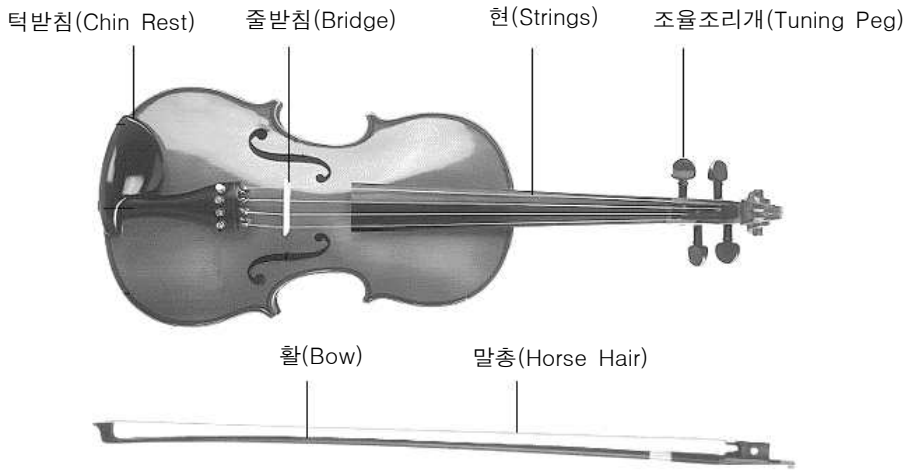
비올라(Viola)의 보표에는 특별히 알토 음자리표가 사용되는데 높은 음이 많이 연주될 때에는 높은 음자리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첼로(Violon Cello)의 보표에는 낮은 음자리표 뿐만 아니라 테너, 높은 음자리표들이 사용될 수 있다.

더블 베이스(Double Bass)는 콘트라 베이스(Contra Bass)라고도 불리우는데 기보된 것보다 1옥타브 낮은 소리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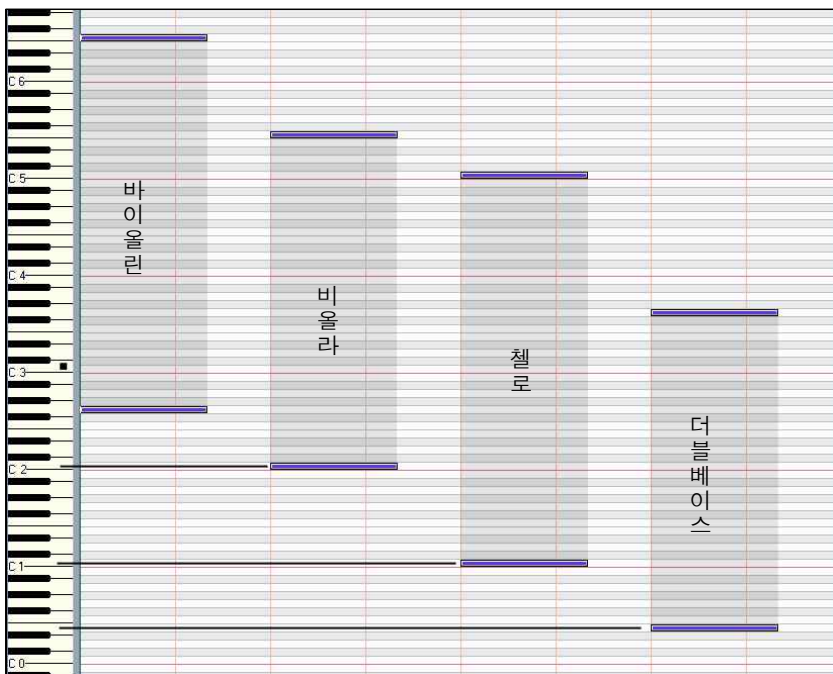
The image displays a vertical list of orchestral instruments, each with its name and a corresponding musical staff. The instruments are arranged in the following order from top to bottom: Picc. (Piccolo), Fl. (Flute), Ob. (Oboe), Cl. in Bb (Clarinet in B-flat), Bsn. (Bassoon), C.Bsn. (Contrabassoon), Hn. in F (French Horn), Tpt. in Bb (Trumpet in B-flat), Tbn. (Trombone), Tb. (Tuba), Timp. (Timpani), Perc. (Percussion), Vn. (Violin), Va. (Viola), Vc. (Violoncello/Cello), and Db. (Double Bass). Each staff shows a 4/4 time signature and a clef (treble or bass) appropriate to the instrument's range.

Chpt3. 현악기의 이해



[바이올린의 구조]

현악기는 줄을 활로 긁거나 뜯어서 줄을 진동시킴으로써 소리를 냅니다. 현의 울림이 공명통에 의해 강화되는데 현악기의 표현력은 다른 악기에 비하여 뛰어나기 때문에 관현악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숫적으로도 과반수 이상이 현악기 주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악기의 음역]

넓은 의미의 현악기는 연주의 방법에 따라서 세 갈래로 구분되는데 피아노나 양금과 같이 현을 쳐서 연주하는 것을 타현악기(Struck Strings)라 하고, 하프와 같이 현을 뜯어 소리내는 것을 발현악기(Plucked Strings), 바이올린과 같이 줄을 켜서 내는 것을 찰현악기(Rubbed Strings)라 합니다.

1. 현악기의 장점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현악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넓은 음역

더블 베이스의 저음에서부터 바이올린의 고음에서까지 약 7옥타브의 매우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표현력

연주의 기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악상도 다양합니다. 레가토, 스타카토, 트릴, 음정 도약 등의 다양한 주법이 가능하고, ‘매우 여리게(pp), 매우 세게(ff)’ 등의 악상 표현이 뛰어납니다.

③ 긴 음의 표현

오랜 시간동안의 연주가 가능합니다. 활의 길이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다른 주자와의 교묘한 교차에 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풍부한 배음

배음적으로 풍부한 소리를 갖고 있어서 밀집된 화음 혹은 개방된 화음 모두에 있어서 좋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현악기의 연주 파트는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하프 6개군으로 세분됩니다. 하프를 제외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크기만 다를 뿐 모두 형태와 연주법이 비슷하며 음색에 있어서도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2. 현악기의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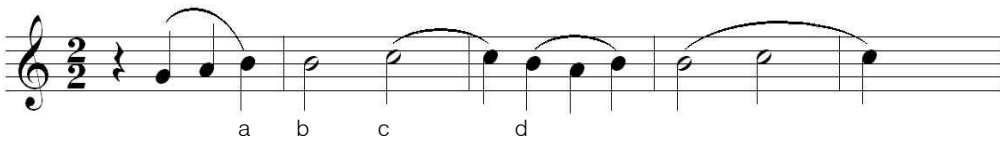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현악기들은 기타와는 달리 프렛(Fret)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음정을 내려면 연주자의 귀에 의존하여 지판을 짚어야 합니다.

현악기는 기본적으로 활로 줄을 켜서 연주하는데 활을 올려 켜는 것을 올림활(Up-bowing)라하고 활을 내려 켜는 것은 내림활(Down-bow)이라 합니다. 악보상에서는 올림활을 ‘V’로 표시하고, 내림활은 ‘∩’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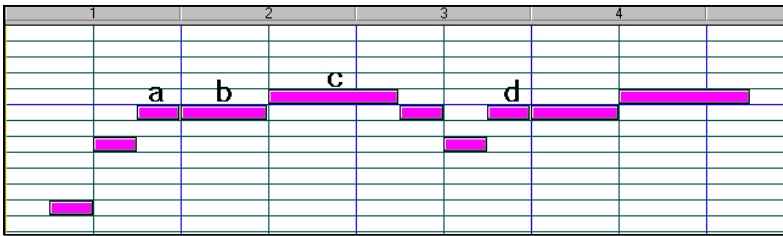
이제부터 현악기의 여러가지 연주법들을 알아보시다.

① 데타세(détaché=non legato)와 레가토(legato)

데타세는 음이 바뀔 때마다 활의 방향을 바꾸어 연주하는 것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주법입니다. 레가토는 음과 음 사이가 끊기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만 활을 켜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음줄이 있으면 레가토로 연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데타세로 연주합니다. 레가토는 음길이를 충분히 채워주고(혹은 앞음과 뒷음의 음길이가 살짝 겹치게 처리), 데타세는 음길이를 몇 tick씩 모자라게 하여 시퀀싱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가상 악기에는 자동으로 이 두 가지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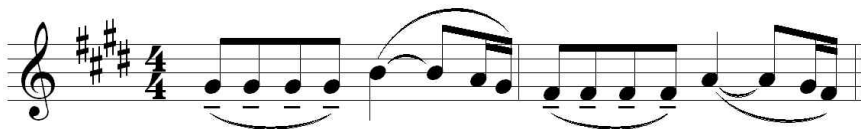
[데타세(a,b,c,d)의 예]



[데타세: a,b,c,d 음들의 길이를 몇 tick 정도 줄여서 서로 끊어져 연주되게 합니다]

② 루레(Louré) 또는 포르타토(Portato)

루레나 포르타토는 레가토와 데타세의 중간 정도의 연주입니다. 즉, 연속되는 음을 손목의 힘을 변화시켜서 약간 끊어지듯이 연주합니다. 이것도 역시 데타세와 마찬가지로 음길이를 약간 줄여서 시퀀싱합니다. **MP3** Fm-046(Messiah-Handel)



[루레의 예]

③ 스타카토(Staccato)

음의 원래 길이보다 짧게 연주하는 것을 스타카토라 하는데 특별히 현악기에는 활을 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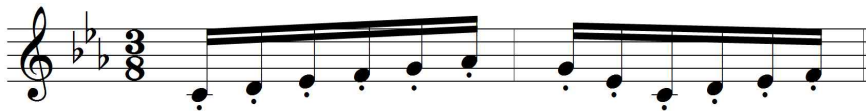
떨어뜨려 하는 것과 현에 붙여서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MP3 Fm-047(Ennio Morriconne-Cinema Parad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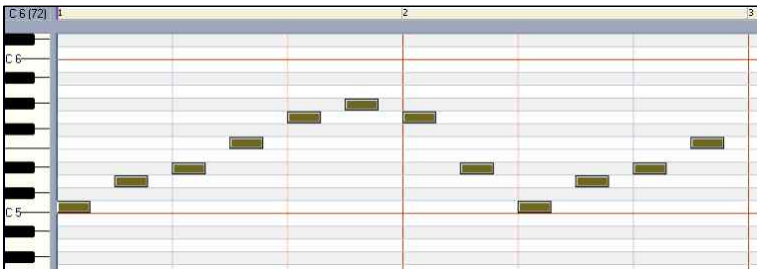
MP3 Fm-048(Adiemus-In Caelum Fero)

보통 스타카토가 활을 붙이는 듯 연주한다면 스피카토(Spiccato)는 튕기는 듯이 아주 짧게 연주합니다. 스피카토에는 활의 끝으로 연주하는 스텐(Jeté)와 이음줄 안에서 연주하는 살탄도(Saltando)가 있습니다. 이것들과 달리 활을 현에 붙인 뒤 손목의 힘을 이용하는 스타카토를 슬러 스타카토(Slur-staccato)라 합니다. **MP3** Fm-049

과거의 신디사이저에서는 스타카토는 음길이를 1/2이나 1/4(스타카티시모), 3/4(메조 스타카토) 가량 줄여서 시퀀싱하였으나 최근의 가상악기에서는 그냥 해당 주법을 녹음해 놓은 샘플을 사용합니다.



[스타카토의 예]



[음길이를 실제보다 절반 정도 줄인다]

④ 피치카토(Pizzicato)

활을 쓰지 않고 (검지)손가락으로 줄을 뜯어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악보상으로는 ‘pizz.’라 표시하며 ‘arco.’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 손가락을 사용하여 여러 음을 뜯기도 합니다. 보통 너무 높은 음이나 너무 낮은 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좋은 울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P3** Fm-050, Fm-051

그리고 피치카토를 보다 세게하여 현을 지판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거칠은 스냅 피치카토(Snap Pizzicato 또는 Bartok Pizzicato)도 있고, 바이올린이나 비올라에서는 왼손의 새끼손가락으로도 하는 손톱 피치카토(Nail Pizzicato)도 있습니다.

⑤ 트릴(Trill)과 트레몰로(Tremolo)

트릴은 음표 위에 *tr* 표시를 하는데 소리는 음정 트레몰로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다소 유연하게 연주하고, 또한 표시된 음의 바로 윗 음정(혹은 b이나 # 음정)을 번갈아 가면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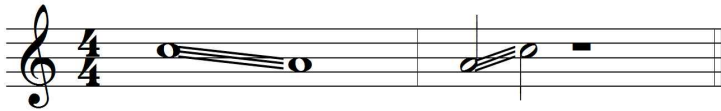
주하도록 그 음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MP3** Fm-052

트레몰로는 손가락에 의한 운지/핑거 트레몰로(=음정 트레몰로)와 활에 의한 운궁/보잉 트레몰로(=음량 트레몰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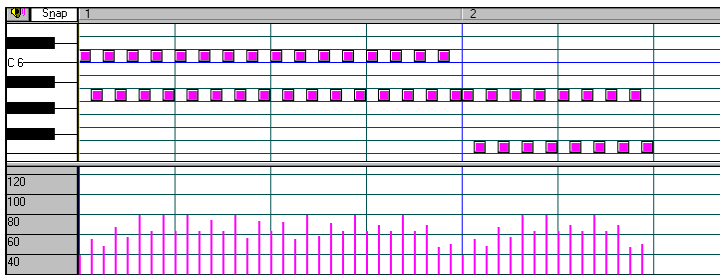
MP3 음정트레몰로=> Fm-053(EnnioMorricone-A Pure Fomality)

MP3 음량트레몰로=> Fm-054(ZbigniewPreisner-Damage)

손가락에 의한 방법은 지판 위에서 한 손가락을 낮은 음정에 고정시킨 채 다른 한 손가락으로 같은 줄의 높은 음정 위치를 짚었다 떼었다를 빠르게 반복하여 이루어집니다. 얼핏 듣기에는 바로 윗음정을 32분음표로 분할/교대 연주하는 트릴(Trill)과 비슷하지만 음정 트레몰로는 작곡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른 음정으로 바뀔 수 있고 또한 32분 음표가 아닌 더 작은 음표로 분할 연주할 수 있습니다. 트릴은 음악적인 표현이라면, 트레몰로는 효과적인 표현인 셈입니다. 미디어에서는 가상악기의 트레몰로 샘플을 사용하거나 테타셰 샘플로 32음표 이하의 음표를 찍어 표현합니다.



[음정 트레몰로의 예]



[보통 32분음표나 더 작은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때 벨로시티로 강약을 변화시킵니다]

활에 의한 방법은 테타셰를 빨리하여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음(줄)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32분음표 이상 분할하여 빠르게 연주합니다.



[음량 트레몰로]

----- [중략] -----

Chpt4. 진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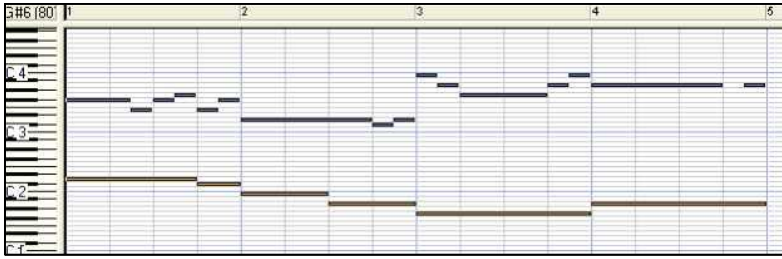
진행 유형(Progress Pattern)이란 주제선율 혹은 제 1성부에 대하여 다른 제 2의 성부가 어떤 관계로 연주되는가를 말합니다. 이 유형들은 3성부 이상의 복합 성부 편성의 기초가 되는 방식이고 각 방식마다 풍겨나는 분위기가 다르므로 실제 곡 작업에 있어서 적절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진행 유형을 다음과 같이 총 8가지로 분류, 정리했습니다.

MID Fm-059-086(진행유형)

1. 근화음적 진행

대체로 화성이 변화하는 시점에 그 근음(혹은 화음)을 연주하는 형태입니다. 안정적이고 품위있는 진행으로서 제 1성부(혹은 주제선율)를 가장 잘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지루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로서 콘트라 베이스는 근음을, 비올라는 화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MP3 Fm-059(this-exam), Fm-060, Fm-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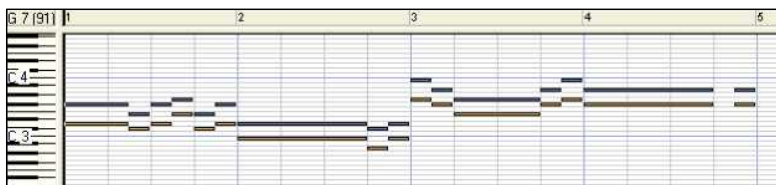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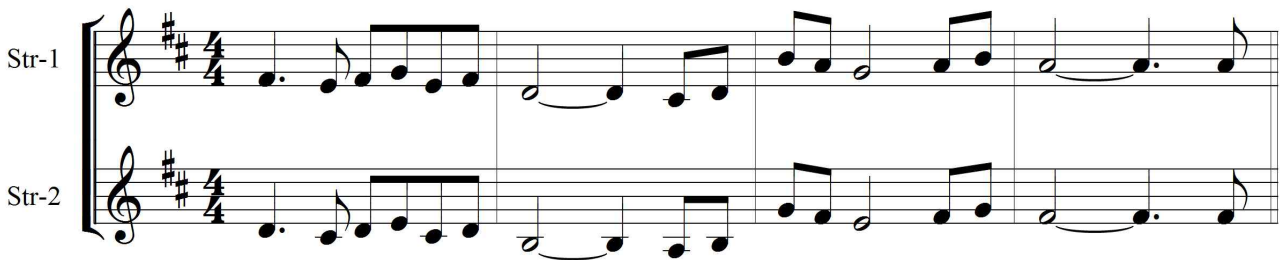
2. 동반적 진행

제 2성부가 제 1성부의 음정의 변화나 리듬변화에 따라가는 진행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세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음정-리듬 동반적 진행

선율에 근접한 화성음으로 연주하되 리듬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제 1성부에 대하여 경건함, 일체감, 힘, 색채감 등을 더해주는 진행으로서 제 2성부가 어떤 음정으로 덧 붙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즉, 제 1성부(주선율)을 뚜렷해지게 강조해주는 힘(Power)은 ‘유니즌 > 옥타브 > 5th > 3rd ...’ 순이며, 색채감(Color)을 더해주는 정도는 그 반대입니다.

MP3 Fm-062(this-exam), Fm-063, Fm-064



② 리듬 동반적 진행

각 위치의 화음에 어울리는 독립적인 선율로 진행하되 리듬이 제 1성부와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리듬에 대한 일체감은 유지하되 색채감만을 첨가하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MP3 Fm-065(this-exam), Fm-066

Str-1

Str-2

C 7 (84) | 1 2 3 4 5

③ 음정 반대적 진행

제 1성부에 대하여 반대방향의 음정으로 진행하는 형태로서 긴장과 완화, 절제와 분출, 은둔과 등장 등의 감정폭의 변화를 나타낼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러스(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감정이 폭발될 때 여러 성부들이 위아래의 음역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MP3 Fm-067(this-exam), Fm-068

Str-1

Str-2

A 6 (81) | 1 2 3 4 5

3. 독립적 진행

선율과 리듬이 모두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로서 한 음악 속에 2개의 중첩된 감성을 담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하나의 화음 속에 제 1성부와 분리된 별도의 제 2선율을 만드어내야 하므로 상당히 세련된 선율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르러 하이브리드(Hybrid) 선율이라 말할 수 있는데 담고자하는 감성내용에 따라서 선율적이지 화성적인지 리듬적인지가 달라질

것이며, 협화적일 수도 있고, 불협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대화적 진행은 제 1성부가 비는 자리에 등장하지만 이 진행은 제 1성부와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MP3 Fm-069(this-exam), Fm-070, Fm-071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staves, Str-1 and Str-2, in F major (one sharp) and 4/4 time. Str-1 is in the treble clef and Str-2 is in the bass clef. Below the score is a piano accompaniment diagram for the first five measures, showing chords for F4, F3, and C2.

4. 대화적 진행

제 1성부의 각 프레이즈 사이에 대답하거나 혹은 여백을 메꾸는 듯한 진행입니다(아래의 제 2,4마디). 여백에서만 나타나거나 혹은 그 이전에 동반적 혹은 독립적인 형태로 미리 진행되기도(아래의 제 1,3마디) 합니다. 제 2성부가 선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악 진행이 매끄럽고 세련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유치하거나 너무 옛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MP3 Fm-072(this-exam), Fm-073, Fm-074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staves, Str-1 and Str-2, in D major (two sharps) and 4/4 time. Str-1 is in the treble clef and Str-2 is in the bass clef. Below the score is a piano accompaniment diagram for the first five measures, showing chords for D4, D3, and 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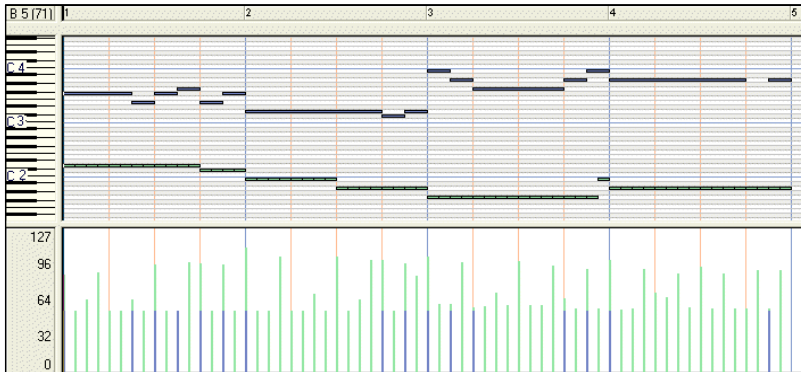
5. 리듬적 진행

리듬을 형성시키는 진행으로서 강세(벨로서티)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진행들이 있습니다.

① 리듬적 진행

제 1성부에 대한 선율, 화성적 관계보다는 리듬을 형성하기 위한 진행입니다. 이미 동반적 진행에서 언급했듯이 제 2성부가 어떤 음정으로 덧붙여지느냐에 따라서 음향의 성격이 달라 집니다. 즉, 강박의 리듬감을 갖는 힘(Power)은 ‘유니즌 > 옥타브 > 5th > 3rd ...’ 순이며, 색채감(Color)을 더해주는 정도는 그 반대입니다.

MP3 Fm-075(this-exam), Fm-076, Fm-077,



② 강세적 진행

강세를 주고자하는 위치에 간헐적으로 연주하는 형태입니다. 리듬적 진행과 한 조가 되어 콘트라 베이스와 첼로는 강세적 진행을 하고,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리듬적 진행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강한 음량(악센트)이나 거칠은 음색으로 연주되기도 하며, 또는 피치카토 주법(현악기)이나 짧은 스타카토 등의 주법이 사용되곤 합니다.

MP3 Fm-078(this-exam), Fm-079, Fm-080

6. 지속적 진행

전체 화음진행을 거스르며 하나의 음정을 길게 늘려 연주하는 형태입니다. 제 1성부와는 다른 제 2의 고정, 불변하는 감성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주변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불변의 감정(그리움, 긴장, 절제, 지순함, 인내, 느긋함, 대상에 대한 주시 등)을 표현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고정된 상황(공포, 주인공에 대한 주시, 압박, 동정, 푸근한 배려, 경건한 종교의식 등), 혹은 기대심리, 알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기다림, 의혹, 무표정, 무감각 등을 표현합니다.

이 진행은 음악적이면서도 때로는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내용에 따라서 불협화음과 협화음 그 어느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 1성부의 위 음역이든 아래 음역이든 모두 가능하며 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감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위 음역일 경우엔 신경 자극, 히스테릭한 공포, 극도의 혼란(불협화음일 때) 등을 표현하거나 혹은 가슴을 시리게 하는 듯한 그리움(협화음일 때) 등을 표현합니다. 제 1성부보다 아래 음역일 경우엔 품위, 절제, 느긋함, 지순함, 경건함(협화음일 때) 등을 표현하거나 혹은 남성적/야수적인 공포, 우울함, 위협적인 혼란, 분노(불협화음일 때) 등을 표현합니다.

MP3 Fm-081(this-exam), Fm-082, Fm-083

----- [중략] -----

Chpt7. 다성부 진행유형의 훈련



아래의 예들은 여러 파트들이 같은 진행을 하거나 서로 다른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각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제 1파트에 결합되는 제 2파트가 갖는 성격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2파트의 유형은 단일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유형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겨울에 떨어지는 비와 눈의 혼합처럼 구분이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상황이 있듯이 말입니다.

1. 존 베리의 'Somewhere in Time'

Vn2/Va는 근화음적 진행, Vc/Db는 대화적/독립적 진행.

MP3 MID Fm-101(JohnBarry-Somewhere in time)

Composed by John Barry

1 ♩ = 94

Vn1

Vn2

Va

Vc

Db

Chpt7. 다성부 진행유형의 훈련

5

A musical score for voice and piano. The score is written on five staves. The top staff is a vocal line in treble clef. The second and third staves are piano accompaniment in treble and bass clefs respectively. The fourth and fifth staves are bass lines in bass clef. The music consists of a sequence of notes and rests across four measures.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notes in the vocal line are: G4 (quarter), A4 (quarter), B4 (quarter), C5 (quarter), D5 (quarter), E5 (quarter), F#5 (quarter), G5 (quarter), F#5 (quarter), E5 (quarter), D5 (quarter), C5 (quarter), B4 (quarter), A4 (quarter), G4 (quarter).

A piano roll visualization of the musical score.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the piano keyboard with notes labeled C1 through C5.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time, divided into measures 1 through 9. The visualization shows the pitch and duration of notes for each instrument part. The vocal line is shown in cyan, the piano accompaniment in magenta, and the bass lines in blue and yellow. The notes are plotted as horizontal bars with vertical stems, showing the progression of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over time.

2. 아디우무스의 'Amate Adea'

Vc는 리듬적 진행, Vn1/Vn2/Va는 리듬동반적 진행

MP3 MID Fm-102(Adiemus-Amate Adea)

Music by Adiemus

1 $\text{♩} =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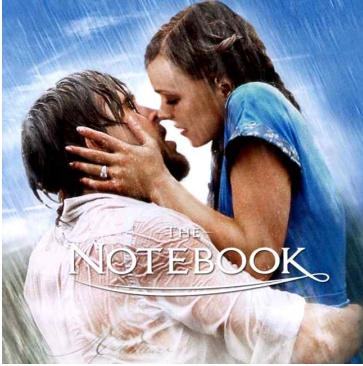
Musical score for measures 1-4. The score is in 4/4 time with a tempo of 67 bpm. It features four staves: Vn1 (Violin 1), Vn2 (Violin 2), Va (Viola), and Vc (Violoncello).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The Vc part plays a steady eighth-note bass line. The Vn1, Vn2, and Va parts play sustained notes, with Vn2 and Va having long slurs across measures 2 and 3.

5

Musical score for measures 5-8. The Vc part continues with eighth notes. The Vn1, Vn2, and Va parts play eighth-note patterns, with some slurs and rests. The Vn1 part has a sharp sign above the first measure of measure 5.

Piano roll visualization of the musical score. The vertical axis shows piano keys from C3 to B3 (47). The horizontal axis shows measures 1 through 9. Colored bars represent notes: blue for Vn1, green for Vn2, orange for Va, and teal for Vc. The Vc part shows a consistent eighth-note pattern across all measures.

3. 아론 지그만의 ‘On The Lake’



아론 지그만(Aron Zigman)을 세계적인 영화음악가로 알려지게 했던 영화 ‘Notebook’, 고전적인 사랑이야기이지만 감동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연인이 아름다운 호수 위에서 보트를 타고 뜨겁게 포옹할 때 연주되었던 곡으로서 이번 예제는 스트링만으로 재편곡하였습니다. Vn1은 주선율을, Vn2는 동반적 진행을, Va와 DB는 근화음적 진행을, Vc는 초반에 대화적 진행을 합니다.

MP3 MID Fm-102b(AaronZigman-OnTheLake)

----- [중략] -----

Chpt11. 오케스트라 타악기의 이해

- 에스닉을 제외한 기본 퍼커션 -



타악기란 어떤 물체를 두드리거나 맞부딪쳐서 소리내는 악기를 일컬으며 음악적인 소리 뿐만 아니라 소음까지 포함됩니다. 타악기는 보통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팀파니, 실로폰과 같이 음정을 따지는 타악기와 드럼이나 심벌즈처럼 음정을 따지지 않는 타악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타악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적인 악기들로서 팀파니(Timpani 또는 Kettle Drum), 베이스 드럼(Bass Drum), 스네어 드럼(Snare Drum), 심벌(Cymbals), 트라이앵글(Triangle), 탬버린(Tambourine), 탐탐(Tam-Tam), 우드 블록(Wood Block) 등이 있습니다.

보조적인 타악기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기본 (타)악기들을 보조할 때 사용합니다. 캐스터네츠(Castanets), 실로폰(Xylophone), 글로켄스펠(Glockenspiel), 마림바(Marimba), 비브라폰(Vibraphone), 벨(Bells)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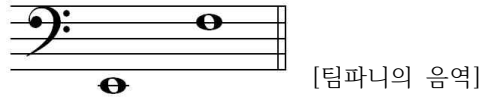
그 외의 타악기

이외에도 작곡가가 의도하는 특수한 음향 효과, 이를테면 바람소리나 카우벨, 싸이렌 소리 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비음악적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로 와서는 음악의 표현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마라카스(Maracas), 귀로(Guero), 클레이브스(Claves), 봉고(Bongo), 팀발레스(Timbales), 탐탐(Tom-Tom) 등의 이국적인 악기들이 과감히 채용되기도 합니다.

1. 팀파니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의 북 가운데서 음정 따져서 악보상에 정확히 표기하여 작곡하는 유일한 북입니다. 북의 윗면은 송아지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테두리에는 6~8개의 나사가 있고 이 나사들은 밑면의 페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페달이 나사들을 잡아당겨 북면을 팽팽하게 만들면 팀파니의 음정이 올라갑니다.



[팀파니의 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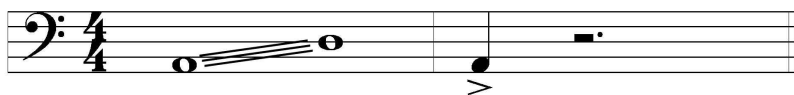
오케스트라의 규모에 따라서 2~4개 가량의 팀파니가 사용됩니다. 팀파니의 크기와 페달의 상태에 따라서 음정이 결정되는데 연주자의 왼쪽에는 저음 악기를 두고 오른쪽에는 고음의 악기를 둡니다. 팀파니는 낮은 음자리표에 기보되며 제일 첫머리에 음정을 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팀파니 연주의 예 MP3 Fm-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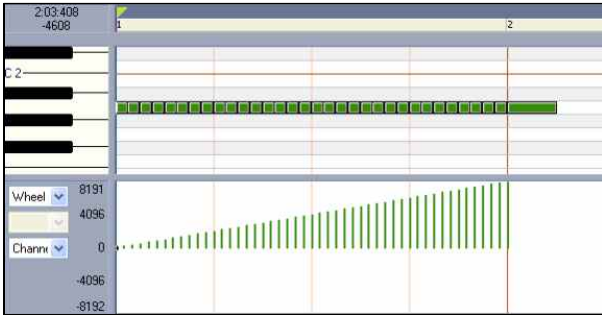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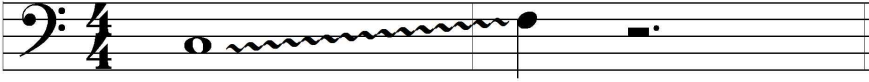
팀파니의 롤(Roll) 연주는 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악기에서는 음표를 32분음표의 연속으로 연주하지만 팀파니에서는 그보다 더 빠르게 연주하곤 합니다. 미디 상에서도 32분음표로 분할 입력할 수도 있지만 해당 연주를 녹음해 놓은 샘플을 다이내믹 컨트롤(CC=1) 또는 익스프레션(CC=11)과 함께 표현해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음높이가 다른 두 개의 팀파티로 롤을 연주하기도 하며 또, 끝맺음의 느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비트에 악센트를 주거나 연주 후 곧바로 손을 대어 뮤트 시키기도 합니다.



[음정이 다른 두 개의 팀파티를 사용한 롤 연주 MP3 Fm-118]

팀파니는 음정을 갖고 있는 악기이므로 글리산도 연주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A음에서부터 페달을 밟아 음정을 D음까지 올리는 것인데 미디 시퀀싱에서는 피치휠(Wheel) 체인지 이벤트로 표현합니다.



[팀파니 글리산도의 기보와 시퀀싱 **MP3** Fm-119]

2. 스네어 드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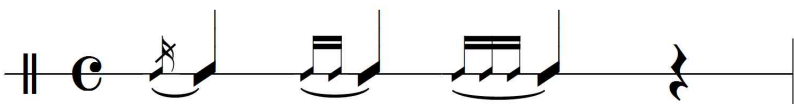


스네어 드럼은 원래 군대 행진용이었다가 오케스트라에 유입되었습니다. 북의 윗면은 그냥 치도록 되어있고 밑면에는 스네어(Snare)라하는 금속줄이 붙어있어서 북을 치면 이것이 함께 진동하여 ‘찰찰’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악보상에 ‘Winthout Snare’라는 표시가 나타나면 스네어를 느슨하게 하여 밑면으로부터 떨어뜨려 연주하는데 이때의 소리는 탐탐처럼 일반적인 북소리가 납니다.

스네어 드럼을 치는 법은 싱글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싱글 스트로크는 북을 북을 한번씩 치는 것을 말하고, 더블 스트로크는 북면의 반동을 이용하여 아주 빠르게 두 번 연속하여 치는 것을 말합니다.

스네어 드럼의 연주법에는 플램(Flam), 드래그(Drag), 포-스트로크(4Strock), 림쇼트(Rim Shot), 롤(Roll) 등이 있습니다.

플램은 악센트를 받는 음 앞에 연주되는 장식음을 말하며, 드래그는 악센트를 받는 음 앞에 연주되는 둘 이상의 장식음을 말합니다.



[플램, 드래그, 4스트로크 **MP3** Fm-120]

림쇼트는 북의 테두리를 쳐서 ‘딱’하는 소리를 내는 주법으로서 악보상에서는 ‘On The Rim’이라고 표시됩니다.

롤(또는 트레몰로)은 LL, RR, LL, RR의 좌우 북채를 빠르게 더블 스트로크하여 연주합니다.